

임수식의 작업세계: 21세기 문자향서권기를 기대하며

임수식은 2007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14회 개인전을 개최하고 수십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Sea》, 《책가도》, 《Babel》, 《Mountain》, 《Star》, 《Room K》, 《Essay》, 《Pictureinary》 시리즈를 선보여 왔으며 이러한 작업 전반에 나타나는 개념들은 개인이나 권력의 욕망, 그로 인해 드러나는 이상과 현실, 질서와 혼돈, 존재와 부재, 소유와 상실, 해체와 구성이라는 복합적이면서도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는 개인과 사회의 욕망을 둘러싼 텍스트와 미디어에 대한 관찰, 성찰, 그리고 재구성이라는 독특한 작업 방식이 뒷받침된다.

무엇보다도 작가는 카메라, 사진이라는 도구와 기법 본연의 형식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재료와 형식을 개발하여 작품을 보여주고자 한다. 말하자면 작업의 시작 단계는 대상을 포착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작가는 사진을 단순히 평면의 액자 형태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의 형태로서 제작하거나 한지 위에 사진을 프린트하여 그것을 다시 바느질로 꿰매기도 하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장황 형식인 병풍 형태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첫 번째 시도였던 책자 형태는 작가 자신의 책에 대한 욕망과 소유욕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작가의 개성과 감각, 나아가 작품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형식이었다. 임수식은 그 이후 작가 고유의 주제와 형식을 일치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전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책(冊)의 원래 의미는 대나무, 종이, 가죽, 잎 등의 물건에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체계적으로 엮은 것이다. 상형문자로서의 기원은 그림과 문자가 새겨진 여러 조각들의 묶음이라는 구체적인 물건을 뜻한다. 따라서 책은 어딘가에 글자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결정되고,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의 관찰, 성찰, 구성, 편집의 행위가 기반이 되며 이러한 행위의 결과물은 개인의 소유 너머 다른 누군가에게로 정보가 전달되는 기능까지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유통, 전달 과정은 개인의 영역을 초월한 공공적인 함의까지 더해짐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책 속의 글, 텍스트는 개인의 가장 은밀하고도 사적인 독백이자 동시에 문명을 일구어온 일종의 현대판 바벨탑과도 같다.

임수식은 이러한 책의 고전적인 의미에서부터 책에 담긴 텍스트와 현대문화의 미디어로서 지닌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였고 적극적으로 작업에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작가의 일상을 기록한 사진일기, 에세이에서부터 책 제작, 나아가 책을 담은 책장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내용과 형식을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내용이 형식과 기법을 규정한다는 논리에 따라 텍스트, 텍스트를 포착한 이미지, 그것을 담아내는 책장, 책장이 공간 어딘가에 놓인 이미지를 그대로 포착하는 것은 작가에게 불가분의 표현방식인 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한 《책가도》는 임수식이 10여 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작업으로서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이루고자 한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책장을 그대로 전시장으로 옮기고 싶다는 발상에서 착안하여 서재를 촬영하였고 이 책장 이미지 속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주변의 서재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책장이 주인의

정체성, 취향, 직업, 성격 등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초상임을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는 순간 임수식의 《책가도》는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를 담게 되었다.

사실 책가도(冊架圖)는 조선시대 민화의 한 형식으로서 책, 문방구, 골동품, 각종 기물들, 화훼 등을 그린 병풍 형태의 그림이다. 주로 책장이 있는 것을 책가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치(文治)를 장려했던 정조시대 이후 궁중 장식화로서도 등장하였다. 화면은 책장의 프레임으로 구획되고 그 안에 선비, 학자의 격에 맞는 물건들을 그려지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기물들의 소재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색상이 화려해짐에 따라 점차 민간에서도 즐기는 그림이 되었다.

책가도의 주된 목적은 선비들의 방과 서재를 장식하거나 공부와 입신양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책가도에 등장하는 서책과 기물들은 어떤 이가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상자 혹은 소유자의 이상과 희망을 담은 그림이다. 또한 책과 기물에 대한 물욕 너머 책과 진귀한 것들로 상징되는 학자의 인품과 그러한 것들을 향유하는 취향과 덕목에 대한 존중과 경의가 기저에 깔려있다. 전통적인 책가도가 이상과 욕망을 담은 가상의 공간이자 그러한 개념들을 시각화한 표현 도구라면 임수식의 《책가도》는 특정한 이의 서재를 촬영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공간이자 서재의 주인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상이기도 하다. 학자, 예술가들의 서재는 그들의 예술세계를 창조하게 된 출발점, 모태이자 동시에 결과물이면서 인물을 그려내는 초상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서재를 펼쳐놓는 방식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가의 시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내밀하고 은밀한, 혹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빗장을 풀고 들어가는 희열을 느끼게끔 만든다.

그러한 비밀스러운 상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작가는 제목이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책장 나아가 서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제 관람객은 마치 추리소설의 한 부분처럼 책장 속 책과 여러 장식품들을 읽어나가면서 책장의 주인공을 유추한다. 또한 책가도 속의 책을 통해 현대 문화를 파악하기도 한다.

임수식은 서재와 책장이라는 대상을 카메라를 통해 사실적으로 포착하지만 전통적인 책가도의 역 원근법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촬영한 서재를 부분적으로 선별하고 편집함으로써 자유자재로 이미지를 만들어나간다. 개별단위로서 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한 책들이 모여지기까지의 시간, 노력, 정성, 취향 등이 고려되며 특히 그러한 책들을 통해 이루어진 책장 주인의 정신적 활동과 업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다가 작가는 한지 위에 프린트한 책가도의 표면에 손바느질을 덧입힌다. 실 한 땀은 글 한 자, 책 한 권을 의미하며 바느질을 통해 여러 땀으로 이어져서 작은 천 조각을 모아 만드는 조각보와 같이 의미 없는 것으로서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책가도》에서 보이는 현실세계의 은유적인 표출은 《Room K》와 《Sea》와 같은 시리즈에서는 전혀 다른 표현방식으로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권력의 힘과 목적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 이 시리즈들은 눈의 오류, 진리와 사실에 대한 무지와 망각 등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세부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저 뿌연게

초점이 흐려진 책등의 이미지나 그저 아무런 일도 없는 듯 일렁이는 물결만이 부분적으로 있을 뿐이다. 특히 다양한 책과 오브제로 가득 찬 대형의 책가도 시리즈와 달리 《Room K》에 등장하는 서가의 모습은 일관된 색채와 서체로 디자인된 책의 부분만 있어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불명확한 텍스트와 이미지는 그 이면에 감춰진 실재를 더욱더 강하게 암시함으로써 인간들의 욕망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부조리, 모순, 혼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철저하게 물질세계를 다루는 듯이 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임수식의 작업은 현실에 대한 기록이자 동시에 작가의 추상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그의 작업은 인간의 정신세계로부터 이루어진 문명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면서 동시에 부작용으로서 나타난 혼돈, 획일화, 무질서에 대한 아쉬운 소회(素懷)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가 대상과 인물에 대해 냉소적이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함으로써 그의 작품은 휴머니즘 다큐멘터리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 작가는 향후 책가도 시리즈 1,000점까지 제작하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는데 《책가도》 1점이 한 권의 또 다른 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작가는 스스로의 책장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작품 속에서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창작 과정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전시1과장